

서울 의대 수시지원 10년 새 ‘최저’ 지방 지역인재 전형은 40% 급증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
1만6181명… 전년비 1.6% ↓
지방의대 27곳 지역인재 전형
1만5775명 지원… 5년 새 최대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상황〉						(정원내 기준)
대학수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8	21,131	20,401	19,522	23,876	22,409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전년대비	
					지원자수	증감률
18,211	18,290	16,671	16,448	16,181	-267	-1.6%

/종로학원

2027학년도 서울권 8개 의대 수시모집 지원자가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선발 확대에 수도권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 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로 지원 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는 1만6181명으로 전년 1만6448명보다 267명(1.6%)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자는 2018학년도 2만1131명에서 2020학년도 1만9522명으로 줄었다가 2021학년도 2만387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 2026학년도 1만6448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지원자는 최고치였던 2021학년도보다 7695명(32.2%) 줄었다.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

대 전국선발 전형의 지원 감소 폭은 더욱 컸다. 지방 의대 26곳의 전국선발 전형 지원자는 8627명으로 전년(1만555명)보다 1928명(18.3%) 감소했다. 2022학년도 2만1011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59%가량 줄어든 규모다.

경인권 4개 의대 지원자도 전년 1만2942명보다 920명(7.1%) 감소한 1만2022명으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서울·경인권 의대와 지방 의대 전국선발 전형 등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전체 지원자는 3만6830명으로 전년보다 3115명(7.8%) 감소했다.

반면 지방 의대에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는 크게 늘었다. 2027학년도 지방 의대 27곳의 지역선발 전형 지원자는 1만5775명으로 전년 1만1247명보다 4528명(40.3%) 증가했다.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됐던 2025학년도 1만9423명을 제외한

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경인권과 지방 의대의 전국·지역선발 전형을 모두 합친 지원 건수는 5만2605건으로 전년 5만1192건보다 1413건(2.8%) 증가했다. 의대 지원 열기 자체가 식었다기보다는 수도권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서 지방 학생 대상 전형으로 지원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 선발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문호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며 “수도권 수험생 일부가 반도체 등 전문학과로 이동하는 현상과 함께,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할 경우 중·고교 단계부터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마감 후 접수된 수시 원서 전면 취소하라”

수시 접수 막통 사태 후폭풍
교육부, 수험생 354건 구제 확정
수험생 연대 “마감 연장 불공정”
전산 장애 피해 소송 의지 밝혀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 수시 원서접수 막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구제 조치를 확정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험생 단체가 집회에 이어 소송까지 예고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도 진상조사와 원서접수 시스템 개편을 촉구 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유웨이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354건의 구제를 확정했다. 반면 마감 연장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실이 전산상 확인된 3건은 대학 측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 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우리는 공정한 입시를 원한다’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구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측은 마감 연장 자체가 불공정했다며, 18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모집 요강과 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킨 것”이라며 “추가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마감 연장 시간 동안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며, 당초 시간에 맞춰 접수한 수험생이 불리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다. 이날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소송 의지도 밝혔다.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는 21일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와 시스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습과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아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서울 검정고시 전체 합격률 90.9%

4439명 합격… 전년비 280명 늘어

올해 제2회 서울 지역 검정고시에서 4883명이 응시해 4439명이 합격했다. 전체 합격률은 90.9%로,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90.5%)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응시자도 지난해(4596명)보다 287명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졸이 351명 중 334명이 합격해 95.2%로 가장 높았다. 중졸은

922명 중 850명(92.2%), 고졸은 3610명 중 3255명(90.2%)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초졸·중졸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초졸은 94.1%에서 95.2%로 1.1%p, 중졸은 90.5%에서 92.2%로 1.7%p 올랐다. 고졸은 지난해와 같은 90.2%를 기록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5608명이 지원해 4883명이 응시했다. 합격 결정 사정 대상 인원 4442명 중 4439명이 최종 합격했

다. 지난해 제2회와 비교하면 지원자는 282명, 응시자는 287명 늘었으며 합격자는 280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후 2시 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합격증서 수여식을 연다. 수여식에는 최고령·최연소 합격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합격생 대표와 가족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합격생 대표 20명에게 합격증서를 전달한다. 검정고시총동문회와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이 각각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김해김이 브랜드 10주년 기념 국내 첫 단독 패션쇼에서 아디다스와 협업한 스탠스미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

서울패션위크, 757만달러 수주상당 실적

잠실까지 확장… 17.6만명 유입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 1500만회

서울패션위크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잠실까지 개최 무대를 넓히며 757만달러 규모의 수주상당 실적을 기록했다. 잠실 월드파크 일대에는 행사 기간 17만6000명이 유입됐고,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는 1500만회를 넘어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7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106개사와 20개국 해외 바이어 98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 기준 1차 집계된 수주상당액은 757만달러다.

프랑스 프랑탕과 사마리텐, 일본 레스티어, 홍콩 클럽21 등 해외 유통사·편집숍 바이어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DDP 상담과 성수·한남동 쇼룸 방문을 연계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 브랜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DDP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한나신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였고, 키모우는 메타와 레이벤의 스마트 안경을 런웨이에 활용했다. 열건과 광현주 컬

렉션은 공연과 라이브 음악을 패션쇼에 결합했다.

잠실에서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김해김과 던스트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런웨이가 열렸다. 김해김은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국내 첫 단독 패션쇼를 열고 아디다스와 협업한 스탠스미스 컬렉션을 처음 공개했다.

런웨이 작품작 일부는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서 패션쇼 직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패션쇼를 상품 판매로 연결하는 ‘썬아우 바이아우’ 방식이다.

행사 기간 잠실 월드파크 일대 유입 인원은 약 17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만9000명보다 5만7000명 늘었다. NCT 데뷔 10주년 무대 의상 전시와 플라마켓도 열렸다. NCT 음악과 무대 의상을 활용한 런웨이에는 1만명 이상이 찾았다.

온라인에서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78건의 콘텐츠가 공개됐다. 누적 조회수는 1500만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DDP의 패션 비즈니스 기능과 잠실의 유통·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시민 참여를 함께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양주시, 시민 체감형 생활 기반 확충

GTX-C, 7호선 연장 등 교통망 강화
테크노밸리·산단으로 일자리 확대

양주시는 옥정·화천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커진 도시 규모에 맞춰 교통·교육·산업 문화·의료·복지 기반을 확충하며 시민 생활 중심의 도시 성장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와 전철 7호선 연장이 핵심이다. GTX-C는 지난 9월 15일 본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덕정에서 서울 도심을 거쳐 수원·상록수까지 86.6km를 잇는 노선으로 개통하면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주역 추가 정차도 추진한다. 덕계역 급행열차 정차로 왕복 15회 증차 효과를 확보한 데 이어 덕계·덕정역 퇴근시간대 배차간격도 단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신도시 학교 확충을 추진한다. 가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 AI·코딩·로봇 교육과 진로교육을 확대한다. 청년 인턴십과 창업 지원도 연계한다.

산업 기반으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를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제조·유통·물류 기업을 유치한다. 지난 7월 입주기업들과 286억원 투자와 140명 신규 고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로지스밸리와는 130원 규모 투자계약을 담은 입주협약을 맺었다.



장덕영 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화천 신도시에서 현장회의를 하고 있다. /양주시

문화 분야에서는 화암사지의 202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지난 7월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대한민국관에는 열흘간 13만7000여 명이 방문했다. 양주 대모산성 발굴·정비와 양주관아지 체험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2030년 착공해 2033년 개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도 타당성 조사에서 양주 공공병원의 비용편익비(B/C)는 1.20으로 나타났다. ‘양주형 통합돌봄 스마트케어 사업’을 통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도 생활권 중심으로 강화한다.

민선 9기 양주시는 ‘시민주권·대전환·경기북부 중심 양주’를 목표로 도시 확장의 성과가 출퇴근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의료·돌봄 등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도록 생활 기반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